

취재협조자료

발신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010-7234-3476)
수신 각 언론사
제목 민희진 '뉴진스 템퍼링'의 진실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 교원중앙빌딩 2층 챌린지홀

2026년 새해가 시작하기 불과 하루 전인 2025년 12월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를 주도하고 뉴진스를 템퍼링으로 빼내어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어도어와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뉴진스 멤버들도 모두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뉴진스의 앞날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하여 뉴진스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에 멤버들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뉴진스의 해체를 염려하며,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른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주장이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교란 공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가조작 공모 세력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을 악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에 하이브의 경영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밝히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뉴진스 템퍼링에 대한 진실]

2024년 4월에 발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대주주 하이브와의 분쟁은 뉴진스 템퍼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이브의 소속계약사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감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지만 하이브에서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 등 거취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민 전 대표 해임과 매니지먼트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해지통보 이후 2024년 12월 2일 한 매체가 “2024년 9월 30일 다보링크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는 박정규와 민희진이 만났다”며 이른바 ‘템퍼링’ 주장을 보도하면서 어도어 대주주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 분쟁은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 문제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9일 언론매체 텐아시아는 자신을 다보링크 회장이라고 칭한 박정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민희진이 뉴진스 빼낼 방법을 의논했다, 민대표의 50억원 투자요청을 받았다, 민대표가 다보링크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방의장을 돼지 XX라고 막말을 했다” 등의 내용을 유포하여 민 전 대표가 박정규에게 뉴진스를 빼내기 위한 투자를 요청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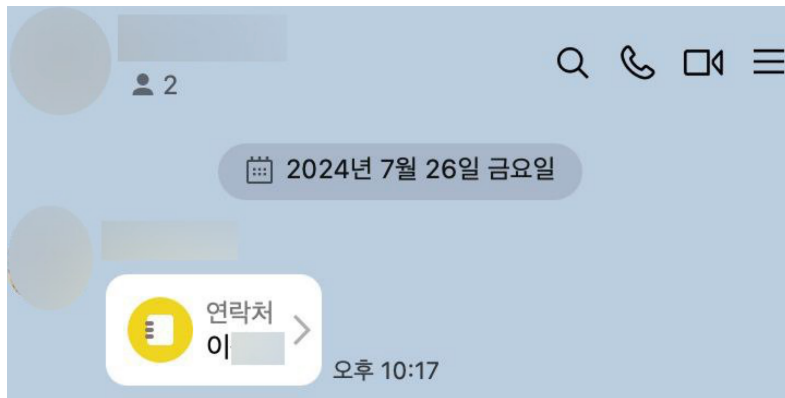


이상의 언론보도로 인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분쟁은 독립레이블 활동보장 문제가 아닌 뉴진스를 빼내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이후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텀퍼링은 기정사실화 되고 모든 비난을 민 전 대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이른바 ‘뉴진스 템퍼링’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허위였습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 주주간 계약상 권리를 대폭 양보하면서까지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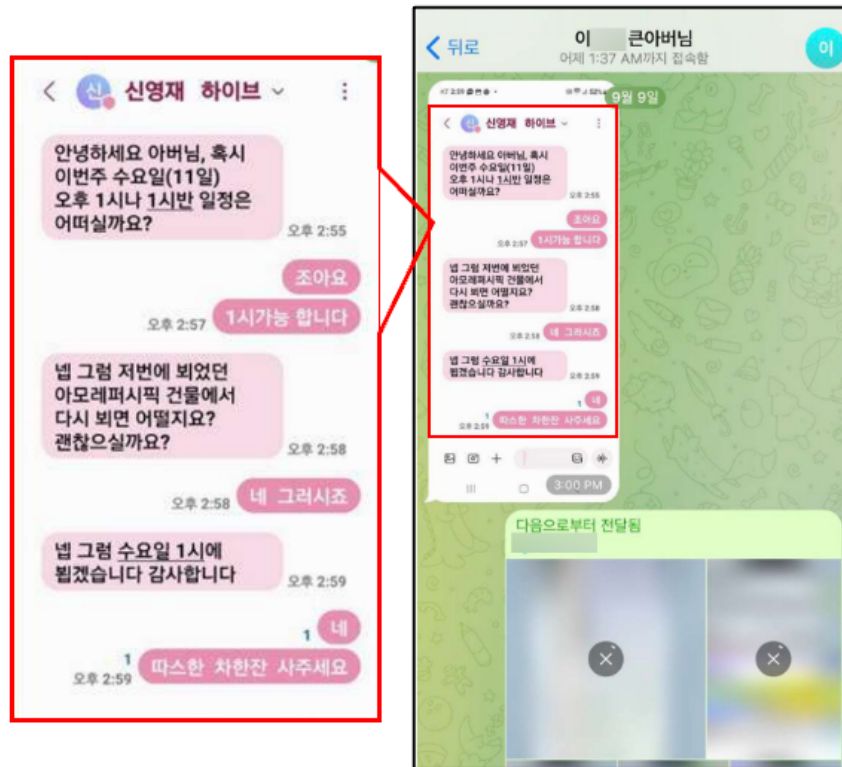
지금부터 실제 템퍼링은 뉴진스 멤버 가족 한 명과 자본시장교란세력의 모의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증거인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경 뉴진스 멤버 한명의 아버님으로부터 “내 형이 인맥이 넓고 연줄이 있으니 하이브와의 협상을 맡겨주면 잘 할 것”는 얘길 들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멤버의 가족이기에, 멤버 중 한명의 아버지가 소개해준 그의 형을 연락처를 2024년 7월 26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맴 한 명의 큰아버지 이모 씨는 2024년 8월까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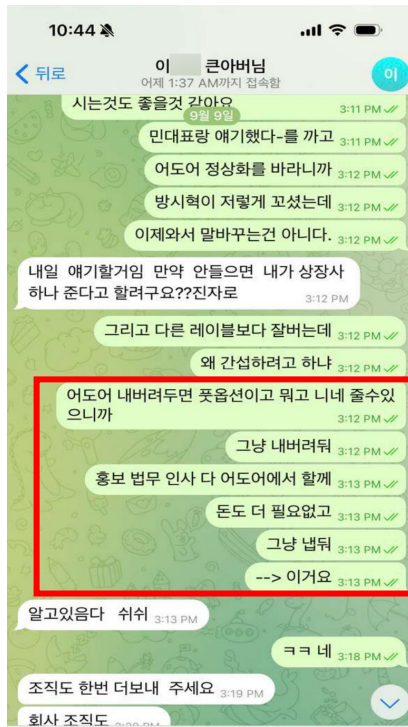


- 2024년 8월 27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뉴진스 활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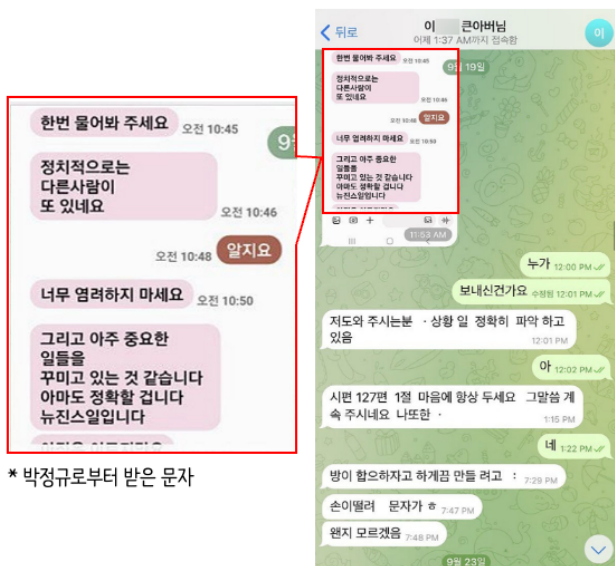
- 2024년 9월 9일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 씨가 다시 민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하이브의 핵심경영진인 신영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신영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하이브와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알립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의 신영재의 지위와 멤버 큰아버지를 믿고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레이블의 독립적 운영만 보장해준다면 풋옵션도 포기할 수 있다”며 신영재와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모 씨는 자신의 발언과 달리 신영재와의 협의에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9월 19일 이 모씨는 민희진 대표에게 '방시혁 의장이 합의에 나서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까지도 이모 씨는 이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박정규로부터 받은 문자

당시 박정규가 이원필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뉴진스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이원필과 박정규가 짜고 마치 박정규가 대단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민 전 대표를 속여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할 의도로 만들어 둔 문자메시지로 보입니다.

- 민 전 대표는 이모 씨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직접 2024년 9월 28일 하이브 대표이사 이재상과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는 여러 화해 옵션을 제시합니다.

이재상은 민 전 대표의 화해 제시에 대한 확답을 미루다 면담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민 전 대표에게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란 회사이름을 들어봤냐”고 물으면서 “만났느냐, 만나지 마라”고 말합니다. 다보, 테라사이언스라는 회사 이름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민 전 대표는 ”테라 뭐요?“하며 금시초문인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음성 대화를 들어보시지요.

대표님-이재상 대화 Audio_09_28_2...	
<p>그리고 지금 자기 말들 인생이 걸려 있는데</p> <p>이재상 48:44 오즘 또 이상한 루머 들은 거 있어요. 그 테라 사이언스 다보링크 혹시 들어보셨어요?</p> <p>민대표님 48:50 테라 뭐요?</p> <p>이재상 48:51 테라 사이언스랑 다보링크</p> <p>민대표님 48:53 다보요?</p> <p>이재상 48:54 다보 다보링크</p> <p>민대표님 48:56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p> <p>이재상 48:58 그런 그런 관리 쪽 이제 또</p> <p>민대표님 49:01 그게 무슨 회사인데</p> <p>이재상 49:02 세력들이 약간 무지본 mna가 하고 하는 일을 찰들해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회진님 주변에 좀 집속을 했더라는 또 정보가 들어</p> <p>민대표님 49:13 전혀</p>	<p>이재상 49:15 걱정돼 가지고 왜냐하면은</p> <p>민대표님 49:16 아니 나는 솔직히 그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뿐더러 지금은 하이브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르릉대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누구 만나서 소문나면은 지랄 될 거 뻔한데 내가 그러겠어요</p> <p>이재상 49:29 만나지 마 왜냐하면 이게 만나지 말라고 만났다는 게 아니라</p> <p>민대표님 49:33 혹시 아니 아니 아니</p> <p>이재상 49:34 동파리가 꼬일 거거든</p> <p>민대표님 49:35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여기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들도 연락이 오는데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데들이 연락이 오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그게 낫다니까 내가 어디 가 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p>

-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곤 보기 어려울 만큼 이재상을 만난 그 다음날인 2024년 9월 29일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가 민 전 대표를 찾아와 “다보링크 박정규이 방시혁의 자존심을 꺾어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박정규란 인물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정규는 이모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10월 26일 해외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고, 방시혁은 자신이 거기에 참석하는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방시혁을 명단에서 빼고 대신 민희진을 넣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 박정규와 이모 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민 전 대표는 영상에서 확인하셨듯 멤버 중 한 명의 큰아버지인 이모 씨에게 “다보, 테라 이게 뭐예요?”라고 묻습니다. 이에 이모씨는 영상에서 확인하셨듯 “테라는 박정규, 다보는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라고 설명합니다.

○ 이 : 끊었어.

○ 민희진 : 테라, 다보 이게 뭐예요?

○ 이 : 테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고. 다보는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지.

○ 민희진 : 잠시만요. 저,

○ 이 : 응.

만약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 테라사이언스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 회사들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인지했다면 ‘이게 뭐예요?’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모 씨가 두 회사를 자세히 소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 전 대표는 박정규와 이모 씨의 전화통화 초입 부분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껴 해당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30일 민 전 대표는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의 권유로 박정규를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은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눕니다. 박정규가 일부 매체에 주장한 3시간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민 전 대표는 또한번 박정규, 이모 씨와의 대화를 녹음하게 됩니다. 멤버 가족의 권유로 박정규와 만나긴 하였으나, 두 사람이 무엇을 꾸미는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든 까닭입니다.

박정규는 민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둘 다 상처만 남는 싸움인데, 이쯤에서 하이브에게 뒷문을 조금 더 두는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자진하여 하이브에서 떠나면서 하이브 측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대화를 들어보시죠.

그러나 훗날 박정규는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민희진이 ‘어도어 회사를 나와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는 박정규와의 만남에서 50억원을 투자받아 테라, 다보링크를 인수한다거나 뉴진스를 어도어로부터 빼온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의 큰아버지 이모 씨와 박정규는 “방시혁과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말과 달리 대화 내내 2024년 10월 26일(실제론 29일)에 열릴 예정이던 ‘ICAЕ 2024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에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박정규, 이모씨의 발언 내용입니다. 당시 발언을 들어보시죠.

○ 박정규 :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약속을 하실래요?
 ○ 민회진 : 뭐요?
 ○ 박정규 : 10월 26일 날 누가 와요.
 ○ 민회진 : 네.
 ○ 박정규 : 거기에는 방시혁이도 참여가 돼 있어요, 명단에.
 ○ 민회진 : 네.
 ○ 박정규 : 그 방시혁이를 내가 빼 드릴 테니까 이걸 조용히 하고 거기에 직접 뉴진스 멤버 누구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ESG 경영이라도.
 ○ 박정규 : 이 포럼 한 번만 해 주세요.
 ○ 민회진 : 저 너무...
 ○ 박정규 : 상대방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 민회진 : 네, 네.
 ○ 이원필 : 어, 하이브 얘기하지 말라고.
 ○ 박정규 : 절대 그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돼요, 그 자리만큼은.
 ○ 민회진 : 네.
 ○ 박정규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있고 거기에 네 명밖에, 해외 사람들 네 명 투자자들이죠. 네 명이 오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꼭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민회진 : 네.
 ○ 박정규 :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조선일보 집안인 모양인데 방시혁이가 먼 집안. 거기에서 추천을 해 줬어요, 사실은. 내가 그 이야기까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명이 오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꼭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민회진 : 네.
 ○ 박정규 :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조선일보 집안인 모양인데 방시혁이가 먼 집안. 거기에서 추천을 해 줬어요, 사실은. 내가 그 이야기까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화 도중 박정규는 “경영권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방시혁이 다시 재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는 등 민 전 대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모 씨는 자신들에게 여러 플랜이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대화를 듣던 민 전 대표는 “방시혁이 재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반문하며 두 사람의 발언에 강한 의심을 품습니다. 당시 발언

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규와 이모 씨는 민 전 대표의 반응이 없자 “민희진이 하이브를 나오면 결국 방시혁은 어도어를 팔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 없는 말을 하면서, 자신과 박정규가 방시혁의 약점을 알고 있고, 이를 가지고 방시혁과 딜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모 씨는 박정규와의 모의를 2, 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대화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 : 민 대표, 우리 생각보다 처음 얘기하는 데 얘기지만 준비 많이 해놨어.

○ 민희진 : 네.

○ 이 :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2개월 동안 정말 머리 싸매고.

○ 박정규 : 거의 날마다 왔어요, 여기에. 하루도 안 빠지고.

○ 이 : 매일 회의하러 왔지. 아무도 이거 들으면 안 되니까.

○ 박정규 :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이 만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들어서만 여기에서 회의하고 끝내고 가고.

(잠시 침묵)

특히나 박정규는 자신이 대한민국 유력지 조선일보 사주와 가깝다, 창원고법 모 판사와 가까우며 그 판사가 “창원에서 누가 가치분하면 형, 내가 다 알아서 맡아줄게”라는 매우 위험한 자랑을 합니다.

○ 박정규 : 판사들은 있잖아요. 다 집들이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되면 지방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6년이 있으면 연차가 차면 저쪽 지방의 법원장으로 간다든가,

○ 이 : 그렇지.

○ 박정규 : 뭐 고등법원의 부장으로 간다든가 이게 가야 돼.

○ 민회진 : 아, 로테이션이 있나 봐요?

○ 박정규 :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지방에 가면 판사를 쓰고 외롭잖아요.

○ 민회진 : 네.

○ 박정규 : 누구 하나 찾아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창원 고법에 민 부장이라고 있어요. 민 . 저보다 2년 후배인데, 개는 2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요. 2주에 한 번씩. 서울을 올라오는데 제가 한 번 내려가면 되게 좋아해. 그런데,

○ 이 : 외로우니까.

○ 박정규 : 우리 본사가 창원에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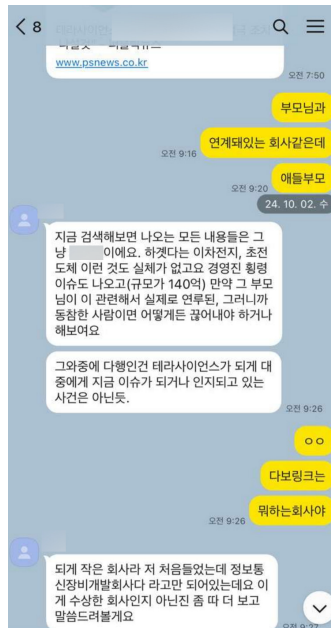
○ 이 : 창원, 창원.

○ 박정규 : 창원에. “형, 창원에서 누가 가처분하면 형, 내가 다 알아서 맡아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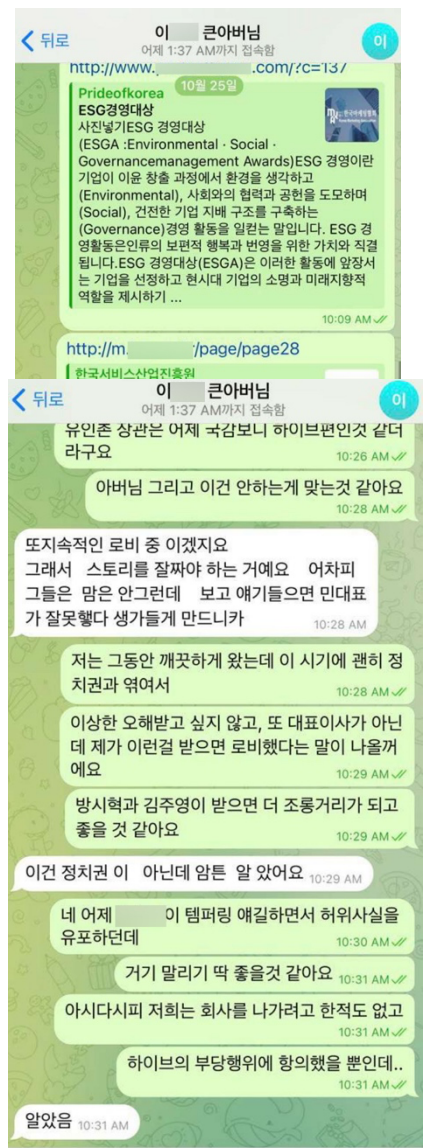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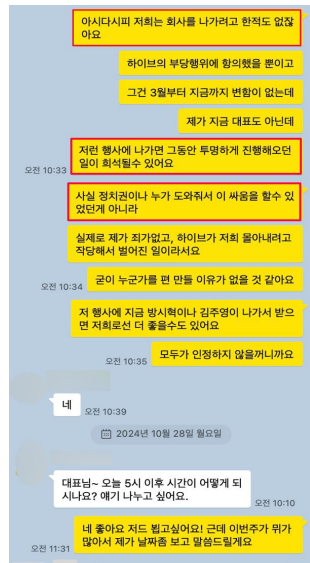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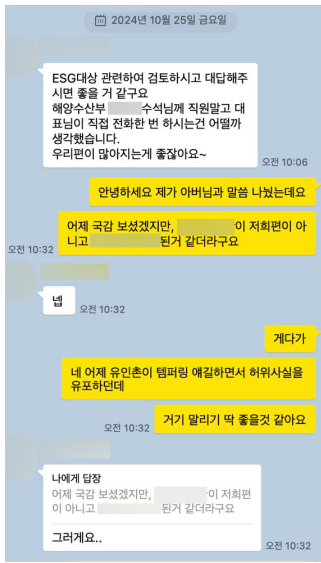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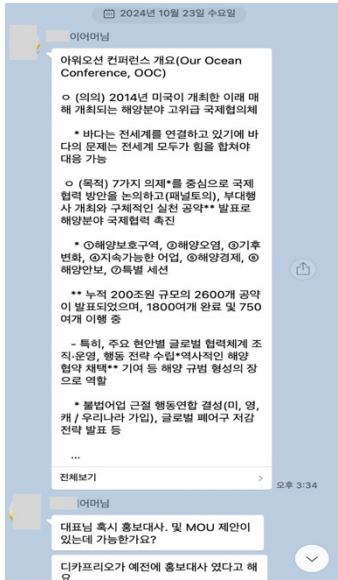
당시 이루어진 대화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였으며, 전체 녹취록을 보더라도 박정규가 언론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템퍼링 모의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이미 경찰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 만남이 끝난 뒤 민 전 대표는 두 사람에게 대한 강한 의심이 사실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규와 두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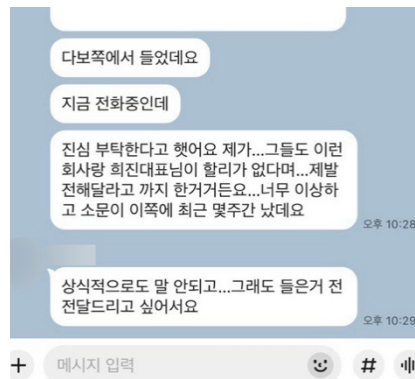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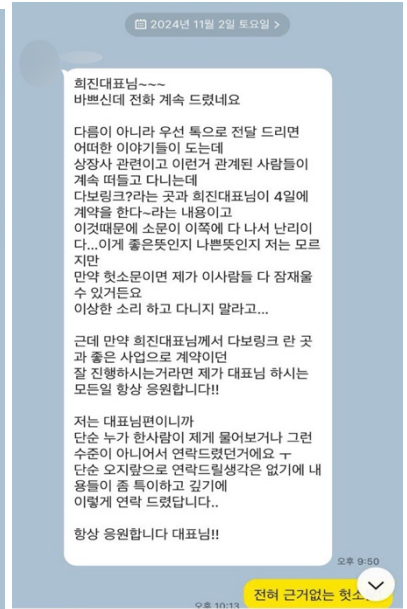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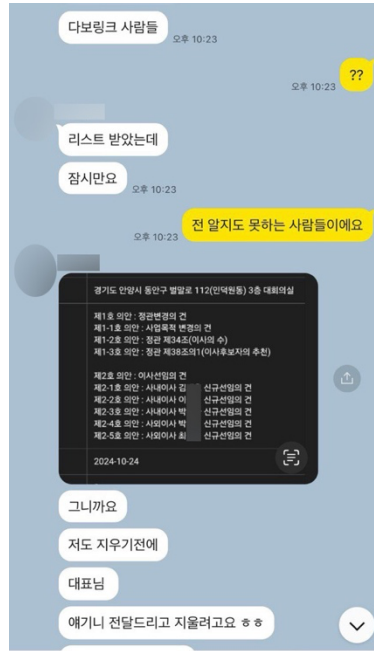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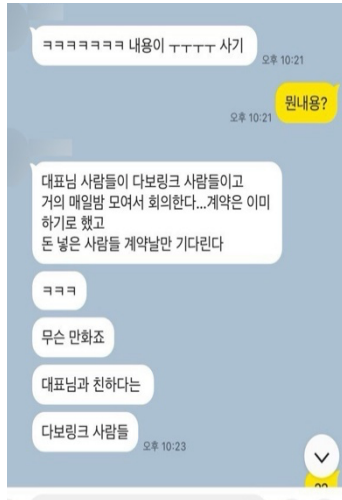
- 2024년 10월 2일 민 전 대표는 지인을 통해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와 박정규가 관련되었다고 하는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에 대해 듣게 됩니다. 테라사이언스는 다보링크를 인수해 주가부양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다보링크의 주가부양 등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와 박정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생각이 사실일 수 있음을 자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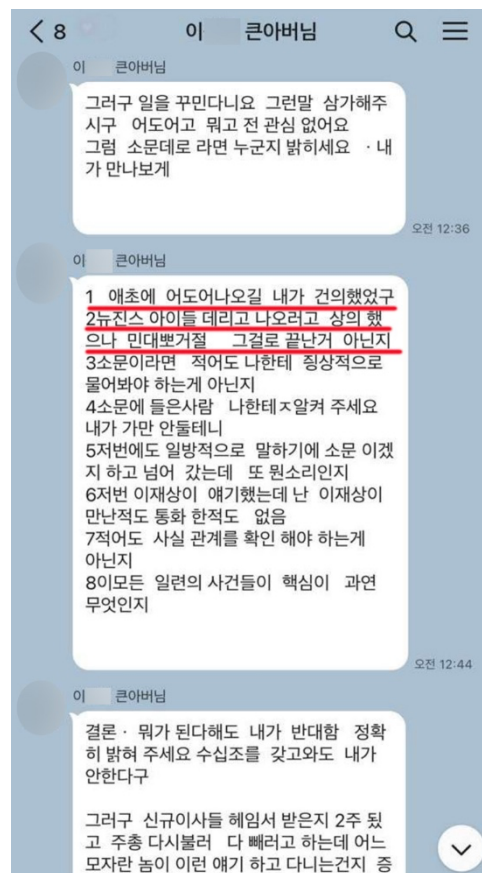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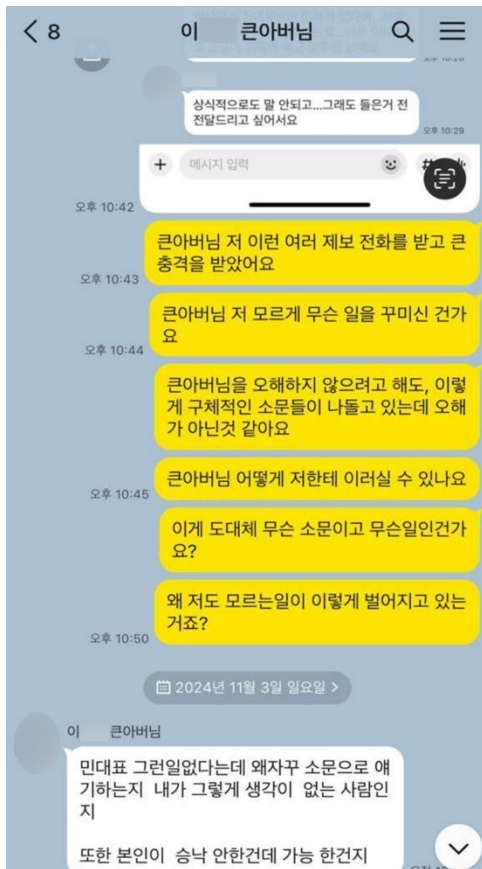
- 2025년 10월 25일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는 민 전 대표에게 2024년 10월 26일에 열리는 'ICAE 2024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참석해줄 것을 재차 종용합니다. 다른 멤버 가족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정치권과 엮여서 이상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고, 어도어 대표이사가 아닌 지위에서 상을 받는 것도 적절치 않으며, 괜한 템퍼링 의혹도 받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 2024년 11월 2일 민 전 대표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계속해 자신과 다보링크가 관련돼 있다는 루머를 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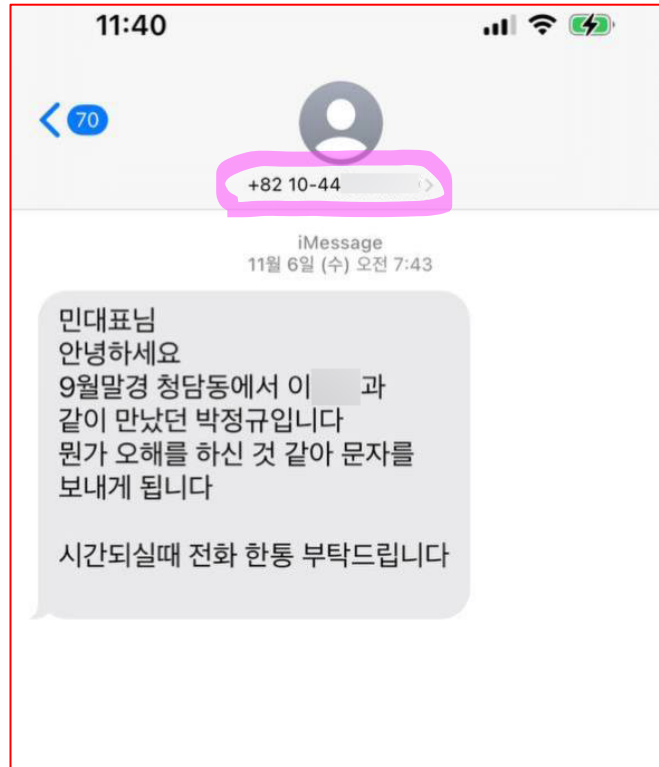


민 전 대표는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에게 이에 대해서 강한 항의를 합니다. 이에 이모 씨는 “나는 어떤 일을 꾸민 사실이 결코 없다”며 “본인(민희진)이 거절한 일을 어떻게 했겠냐”고 되레 강한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애초에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려는 자신의 제안을 민 대표가 거절하지 않았느냐”는 말로 뉴진스 빼내기를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계획했고, 이를 민 전 대표가 거절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 2024년 11월 5일 민 전 대표는 계속되는 다보링크 관련 루머에 특정회사와 연관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이 입장문이 발표되자 다보링크는 주가는 급락합니다.

- 2024년 11월 6일 박정규가 민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으며 전화통화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자에 표시했듯 민 전 대표는 박정규의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입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다보링크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입니다. 애초 다보링크는 10월 2일 공시에서 사내이사로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의 큰아버지, 바로 이모 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와 연관이 없다는 발표를 하고 이틀 뒤 다보링크는 이모 씨의 사내이사 등재를 취소합니다.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 []	1960-03	3	신규선임	- 중앙고등학교 - (주) [] 대표 - (주) [] 대표
이 []	1967-01	3	신규선임	- 한양대학교 - 現 핸디 [] 회장
박 []	1980-12	3	신규선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 [] 브랜드총괄 디렉터 - (유) [] 대표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박 []	1981-02	3	신규선임	- 뉴욕대학교 석사 - (주) [] 대표 디렉터	-
최 []	1963-07	3	신규선임	- 한양대학교 - [] 이사 - [] 교회 담임목사	-

이모씨와 박정규가 결탁해 다보링크를 뉴진스, 민희진 테마주로 만들려고 했으나 민희진 대표의 거절과 차단으로 실패하자 박정규가 활용도가 사라진 이모 씨를 다보링크 사내이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 박정규와 이모 씨가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를 테마주로 만들려고 획책한 시도가 무산되고 한달 여가 흐른 2024년 12월 2일 한 매체에서 이른바 ‘민희진 뉴진스 템퍼링 시도’ 보도를 합니다.
- 반면 4일 뒤 2024년 12월 16일 언론매체 조선비즈에선 다보링크가 민희진 등을 이용해 테마주 편승 및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합니다.

- 2025년 1월 9일 언론매체 텐아시아에서 "민희진과 뉴진스 탈취 계획을 논의했다"는 박정규 인터뷰를 보도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2024년 12월 한 매체가 공개한 민희진 대표와 박정규의 만남, 2025년 1월 텐아시아가 보도한 박정규 인터뷰기사의 내용인 이른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 따르면 2024년 12월 2일자 한 매체의 기사 중 민 전 대표가 박정규에게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더러 멤버 큰아버지 이모씨와 투자를 타진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2024년 9월 29일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씨와 박정규의 전화통화를 듣다가 테라, 다보 라는 알 수 없는 이름을 알았고, 당연히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의 관계나 투자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공신력 높은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정중히 묻습니다. 어떻게 민 전 대표가 박정규를 만나는 것을 알고, 촬영을 했는지 과연 누구에게 연락을 받고 이 장면을 촬영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재 중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자 텐아시아 기사는 민 전 대표에게 반론권도 제대로 부여하지도 않은 채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박정규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어떻게 빼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새로운 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얘기를 했다, 민희진이 50억원 투자제안을 알고 있었다, 다보링크 인수를 민대표에게 제안하였다는 기사는 박정규를 만난 당시 녹취록, 멤버큰아버지 이모씨의 SNS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박정규가 인정하듯이 자신이 관계된 다보링크, 테라사이언스의 주가부양 계획에 민희진과 뉴진스를 끌어들이 수 없게 되어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인터뷰를 한 것이 자명합니다.

박정규는 2023년부터 방송에 나올만큼 M&A, 무자본기업인수, 자본시장교란 등에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아시아가 이러한 인물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박정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공정한 취재를 해야 하는 보도윤리를 어긴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텐아시아에 묻습니다. 처음부터 박정규와 공모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텐아시아는 대한민국 유수의 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의 자회사입니다. 한국 최고의 경제신문 산하 매체가 박정규에 대한 배경 취재없이 이러한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건 단순 실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걸 텐아시아 스스로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자본시장교란세력이 이 기사를 어떻게 악용했고, 그 악용이 어떻게 사실처럼 포장됐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밝혀주시시오.

이 같은 보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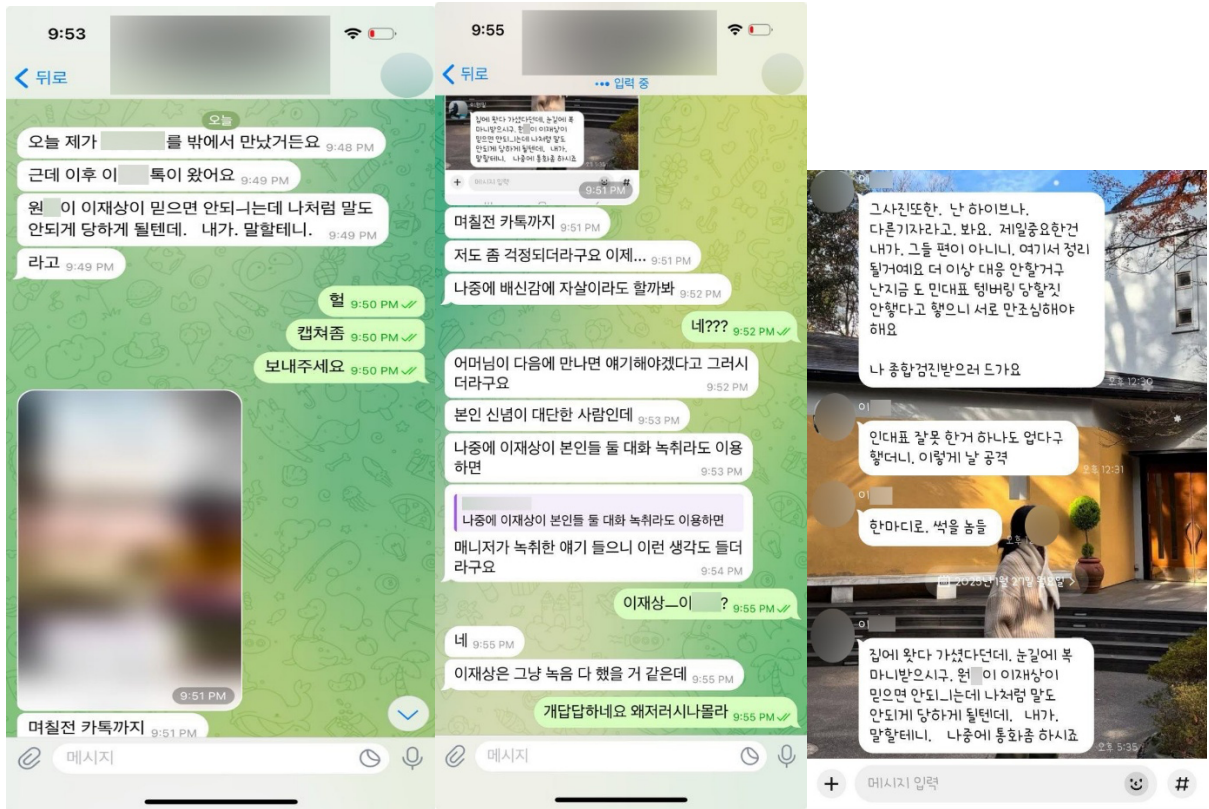
바로 민희진 전 대표와 주주간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던 하이브입니다.

2024년 9월 29일과 9월 30일 민희진 대표는 멤버 큰아버지 이모씨와 박정규로부터 테라, 다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 직전 2024년 9월 28일 하이브 이재상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재상 대표가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를 민 전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접촉하고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민 전 대표는 이재상 대표와 합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정작 이재상 대표는 면담 말미에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 회사 이름을 특정하여 민 전 대표와 접촉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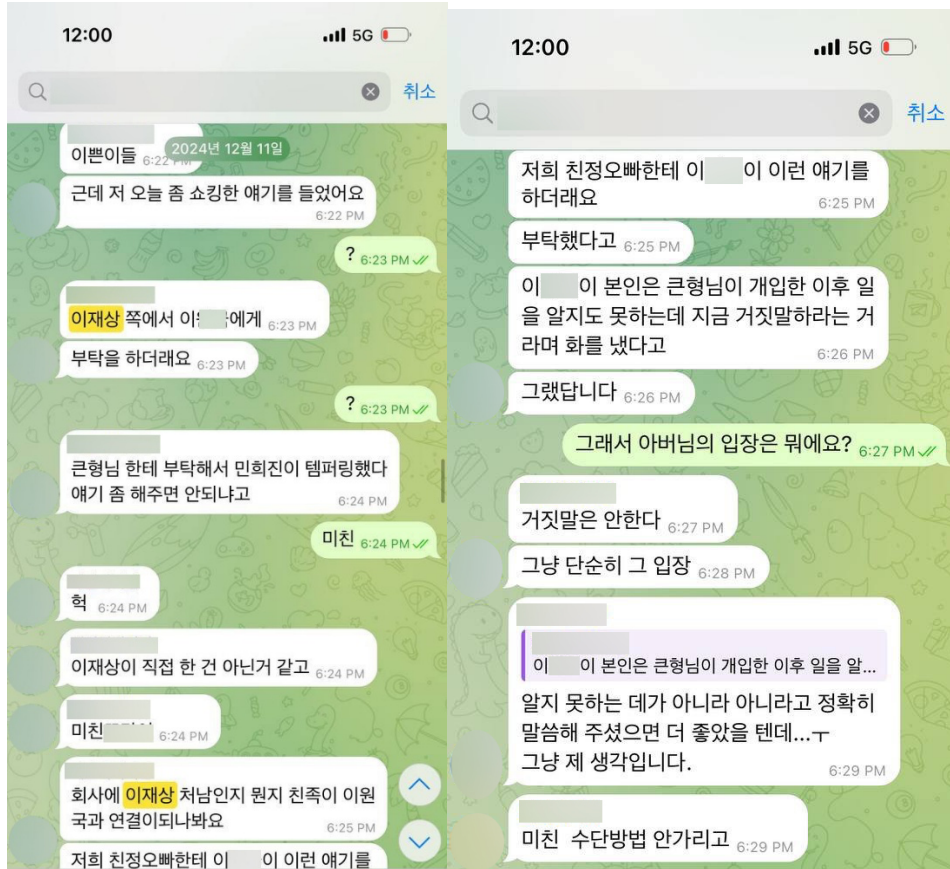
또한 이후 뉴진스 템퍼링을 시도하고 박정규라는 자본시장교란세력을 끌어들이고 이모씨를 소개한 멤버의 다른 가족이 이모 씨로부터 이재상 대표를 믿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며 민대표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2024년 9월 30일 민 전 대표와 박정규가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가 알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한 언론사에 알려져 결국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이를 방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다.



또한 2025년 이재상 대표가 멤버 큰아버지 이모씨 또는 박정규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민 전 대표와 주주간 계약 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가 뉴진스 텀퍼링이란 프레임을 민 전대표에게 씌우기 위해 계획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심은 단순히 박정규를 만나기 직전인 2024년 9월 28일 이재상 대표가 테라, 다보링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주주간계약 소송에서 하이브 이재상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에게 텀퍼링 관련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는 뉴진스 멤버 부모의 말을 근거로 더욱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케이팝 내부의 자율성 문제를 대통령도 패가망신시켜야 할 정도로 근원을 없애야 하는 자본시장교란세력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고 이를 언론이 이용 당했거나 함께 이용했고,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는 자신의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민희진 대표와 언론들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정규, 텐아시아 해당 기자와 편집국장을 형사고소할 예정입니다. 또

한 박정규에 대해서는 테라사이언스 및 다보링크의 주가부양을 위해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4조 위반혐의, 즉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